



Global Goings-on

미 국

인구, 정력의 상징 Virility symbols

- ▶ 보수적인 미국인들은 인구를 대상으로 삼아 미국의 활력과 정력을 유럽의 쇠퇴와 대조하길 좋아한다고
 - 한 예로, 미트 롬니는 2008년 대선 선거 운동을 끝내면서 유럽의 “인구재앙 (demographic disaster)”은 조물주에 대한 믿음 약화, 가족의 붕괴, 인간 생명의 존엄성 경시와 무너진 도덕에 따른 불가피한 산물이라고 말하기도
- ▶ 미국인들은 특히 한 명의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(TFR)에 관심을 쏟는다고
 - 수 년간, 미국은 부유한 국가들 중 비교적 높은 2.1의 합계출산율을 보였는데, 이는 인구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인구 대체율
 - 유럽 국가들은 통상적으로 2.1보다는 낮거

나 때로는 훨씬 낮은 수치를 보였다고

- ▶ 이러한 이유로, 2011년 미국의 출산율이 대체 수준 이하로 떨어지고 일부 유럽 국가들의 출산율보다도 낮아졌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
 - 미국의 출산율은 1.9명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는 2명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영국의 출산율은 2명에서 약간 상승하고 있다고
 - 2007년 최고치에 달했던 미국의 출산율은 2007년 말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감소하게 된 것
- ▶ 경제불황은 적어도 두 가지 채널을 통해 출산율을 감소시키고 있다고
 - 첫째, 이주민들이 종종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데, 이들은 대가족인 경우가 많아 이것이 출산율을 떨어뜨리고 있다고
 - 둘째, 주택 위기와 맞물려 소득의 감소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가지는 것을 미루도록 하고 있다고

- ▶ 2011년 퓨 리서치 센터는 18세에서 34세의 미국인들에게 불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묻자 22%는 자녀계획을 미루고 20%는 결혼을 미룬다고 답했다고
 - 이러한 대응은 유럽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만 미국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고
- ▶ 워싱턴에 있는 한 인구조사기관의 인구학자인 칼 호브씨는 미국의 출산율은 탄력적이기 때문에 향후 다시 적정한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주장
 - 이미, 미국에서 새로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2010년에는 12만 4천명 감소했지만 2011년에는 4만 6천명만이 감소
 - 또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이 정체되었다가 2010년과 2011년 사실상 감소하였으며 지중해와 동유럽 국가들 모두 현재 미국의 합계 출산율에는 훨씬 못 미치는 상황
- ▶ 그러나, 프랑스의 출산율은 현재 미국의 출산율보다 높고, 대불황으로 인한 인구의 변화가 미국인들은 정력이 넘치고 유럽인들은 무기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

2012년 8월 11일 / The Economist
(원문링크: <http://www.economist.com/node/21560266>)

걷기운동이 최고

An Easy Way to Get Enough Exercise: Take a Walk

- ▶ 건강한 삶을 위해 적당한 강도의 에어로빅을 일주일에 적어도 2시간 30분씩 하라는 정부의 권고안이 벅차다고 생각된다면 걷기 운동 클럽에 가입하는 것은 어떨지
 - 미국인의 50% 미만이 정부의 운동 권장량을 따르고 있으며 약 1/3의 미국인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
- ▶ 그러나 미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이 변화할지도 모른다고
 - 새로 발표된 보고서에서 질병관리본부는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운동으로 걷기를 하고 있으며 밖에 나가 걷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운동 필수 요구량을 3배 이상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다고
 - 이 보고서는 거의 5만 명의 성인 미국인이 참여한 2005년과 2010년의 국립보건인터뷰 조사(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(NHIS)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고
 - 데이터에 따르면 2010년 성인 중 62%가 지난 주 적어도 한번 10분 동안 걷기운동을 한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(2005년의 56%에서 상승한 수치), 보행 보조기가 필요한 성인들조차 4명 중 1명이 걷기운동을 했다고

- ▶ 토마스 프리덴 질병관리본부장은 화상회의

에서 걷기운동의 놀라운 효과를 강조하며 “2005년과 비교해서 2010년에는 1천 5백만이 더 걷기운동을 했다”고 밝혀

- 그는 또한 “걷기운동만큼 좋은 약은 없습니다. 걷기운동을 하면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죠. 몸무게가 줄지 않더라도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당뇨병이나 고혈압,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릴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”라고 덧붙이기도

▶ 조사에서 ‘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’은 ‘어떤 이유로든 지난 주에 적어도 10분간 한 차례의 걷기를 한 사람’으로 규정

- 서부지역과 동북부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걷기 운동을 하는 것으로 기록됐지만 남부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걷기 운동 증가율을 보였다고(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2005년 49%에서 2010년 57%로 증가)

▶ 프리텐씨는 “걷기운동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며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운동”이라고 말하기도

- 또한 “걷기 운동은 돈이 들지도 않고 체육관까지 안가도 되며 운동 전후에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”이라고 덧붙이기도

▶ 그러나, 걷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는 있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말해

- 한 예로, 걷기 운동이 더욱 보편화되기는 했지만, 걷기 운동을 하는 시간은 오히려 2005년 하루 15분에서 2010년 13분으로 감소하였다고

- 이에, 질병관리본부의 조안 M. 도른 박사는 “사람들이 걷기 운동을 더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”하다고 말하기도

- 프리텐씨는 “걷기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친화적인(walker-friendly) 장소를 만들어서 더 많은 미국인들이 걷기운동을 하도록 권장해야 한다”고 주장

▶ 보고서에서, 질병관리본부는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공

- 주 정부와 지방 정부가 수업 시간 이외에 학교 경주로나 체육관을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

- 고용주들이 직장 주변에 걷기운동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표지판과 지도에 표시할 것

- 주민들이 거리 조명과 조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횡단보도를 만들고 과속방지턱을 만들려는 지역 정부의 계획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

- 도시 계획을 할 시, 직장과 주거지가 가깝도록 설계하고,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사람과 자전거를 타는 사람, 보행자, 장애를 지닌 사람들 모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걷기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

▶ 이외에 걷기 클럽에 가입하거나 운전 시 속도위반을 하지 않고, 보행자들의 통행권을 존중해 주는 등 다른 사람들이 걷기 운동을 더욱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걷기 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

2012년 8월 7일 / Time

<원문링크: <http://healthland.time.com/2012/08/07/an-easy-way-to-meet-physical-activity-guidelines-take-a-walk/?iid=hl-main-lede>>

중 국

개혁이 필요한 중국의 연금 제도 Social securit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

- ▶ 18세기 중국 황제 건륭은 은퇴 후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입체화법으로 그려진 그림들과 명상을 위한 쿠션을 갖춘 조용한 안식처를 자금성에 짓도록 했다고
- 그러나, 중국의 많은 노인들은 건륭과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은퇴를 하더라도 노후생활이 건륭처럼 화려하지 않다고
 - 2009년 중국 성인의 30% 미만이 정부의 펌빵식 연금 혜택을 받았고 대부분의 지방 사람들의 은퇴 후 노후생활 방편은 자신들의 발과 가족 뿐
- ▶ 하지만, 이후로 연금은 놀라운 속도로 확산되었고 지난주 중국 국가감사기구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6억 2천 2백만 명의 중국인들이 어떠한 종류의 연금이든지 가입되어 있으며 이는 중국 성인의 55%를 넘는 수치
- 2년 만에 중국의 새로운 지방 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2억 4천만 명이 늘었으며 이는 미국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사람들보다 많은 수치
- ▶ 그래서, 중국의 연금제도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연금기금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고
- 도시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개인 계정에 연금을 부어서 국민연금을 보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의 근로자들도 이와 똑같이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
 - 그러나, 한 통계치에 따르면 이러한 개인 계정에 약 2조 5천억 위안이 들어왔지만 실상 계정에 남아있게 되는 돈은 거의 없다고
 - 이는 인근의 홍콩과 싱가포르의 개인 계정과 다르게 중국의 개인 계정 연금 저축액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
 - 지방 정부에서 지방정부지출, 부동산 투기나 1990년대 기업 인원 삭감 당시 국영 기업에서 퇴출당한 퇴직자들의 연금 지급 등과 같은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고
- ▶ 이렇듯 연금기금이 거의罄령되다시피 하는데도 중국에서 저축과 투자는 줄지 않고 있다고

- 작년 중국은 GDP의 49%를 연금에 투자했고 거의 3%를 외화자산에 투자
- 중국이 국가 전체적으로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지만 개인 연금 가입자들은 이러한 연금에 대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연금제도에 부어 넣은 돈이 지방정부의 이런저런 재원을 통해서라도 보전되기만을 바라고 있을 수 밖에 없다고
- ▶ 이러한 상황에서 한가지 합리적인 개혁방안은 중앙정부가 연금제도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
 - 이렇게 하면 강통계정을 채울 수 있고 중국 난방식의 제도를 한데 통합할 수 있으며 연금의 계정 이전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
- ▶ 또한, 연금 제도의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 장기적인 목표는 개인 가입자가 자신의 계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홍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금 투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
 - 여기서 문제는 중국이 여전히 홍콩과 싱가포르와 같은 성숙하고 개방된 금융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, 기복이 심한 중국의 주식 시장은 현재 은퇴 후 노후자금을 저축하기에는 이상적이지 못하다는 것
- ▶ 중국의 연금 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정부가 외화자산의 일부를 국가 사회보장기금으로 이양해야 할 것이라고
- 그렇게 하면 중국의 미성숙한 금융시장에 부담을 지우지 않고 강통 계정을 채울 수 있을 것이며 가계의 투자를 다양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
- 또 다른 방안은 스웨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빈 계정을 “명목 계정”으로 전환하여 개인 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령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
- 연금은 현재 여전히 세수와 중앙 연금기금에서 지급되고 있지만 성숙한 금융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면 연금 제도는 홍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특성을 버리고 자본주의적 특징을 지녀야 할 것이라고
- ▶ 한편, 중국이 연금 기금을 아무리 잘 운용해도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연금 부담은 증가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
 - 2035년이면 중국인의 약 30%가 60세 이상이 될 것이며, 이 많은 사람들에게 연금을 지급할 여력은 없을 것
 - 향후 10년에 걸쳐 공식적인 은퇴 연령은 현재 남성 60세, 노동직 여성의 경우 50세에서 65세로 상승하게 될 것

2012년 8월 11일 / The Economist

〈원문링크: <http://www.economist.com/node/21560259>〉